

여성에게 있어 환경은 건강과 생명에
영향을 미친다

불안
미국
한국
가나
하위판

환경과 여성건강에 관한 국제회의

(International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Women's Health)

I. 주제

- '지속가능한 사회와 건강 그리고 젠더(Sustainable Society, Health and Gender)'

II. 목적

- 리오회의(1992), 북경여성대회(1995), 요하네스버그 WSSD회의(2002)로 이어진 지속가능한 발전에 성관점(Gender perspectives)을 통합하기 위해 여성·환경·건강에 관한 논의 및 활동성과를 공유하고 환경과 여성건강 관련 주요 의제를 개발
- 환경과 여성건강 관련 연구 및 정책동향을 국제적 차원에서 공유
- 여성·환경·건강 관련 국제 네트워크를 형성

III. 배경

○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위험 증가

- 산업화 그리고 인간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사용되는 다양한 화학물질로 인해 '환경보건(Environmental Health)'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부각되었다.
- 환경부에서는 최근 환경에 대한 접근을 기존의 매체별 접근에서 수용체 중심적 접근으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인간 및 생태계를 중심으로 한 환경관리에 역점을 두고 있다. 또한 이러한 내용을 '환경보건10개년 계획'을 통해 반영하고 있으며 올해를 환경보건 원년으로 삼고 있다.

○ 소외된 여성의 환경건강문제: 성 관점(gender perspective)의 필요성

- 그러나 환경보건정책에서 다양한 인간 집단 중 어느 집단을 기준으로 하는가를 볼 때 현실은 남성중심적인 시각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, 관련 연구 또한 남성을 인간 기준으로 삼아 진행되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다. 그 결과 한국 여성의 유방암 발생률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며, 자궁 등의 여성생식 관련 질환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정책이나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.
- 여성은 남성과 다른 생리적 특성을 지니며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다. 여성이 지방조직의 비율에서 남성보다 높고 임신, 수유와 같은 생애주기의 변화를 겪는다는 점은 살충제에 대해 더 취약한 조건에 처하게 한다. 그리고 낮은 사회적 지위와 경제상태는 건강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마저 떨어뜨린다. 이에 더해 여성은 모체로서 미래세대의 건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환경보건정책에 있어서 남다른 고려와 관심이 필요하다.
- 따라서 환경오염물질로부터 상이한 영향을 받는 여성의 특수성과 사회적 취약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환경보건의 성관점화(Engendering Environmental Health)가 요구된다.

○ 환경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

- 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은 유럽과 미국과 같은 선진국가에서 이미 중요한 환경정책 이슈로 다루어지고 있다. 유럽의 경우 1980년대 말부터 WHO와 함께 '유럽 환경보건 장관 회담'을 개최하였고, EU라는 큰 공동체 안에서 건강과 환경문제를 통합적인 시각에서 다루고 관련 정책과제 모색에 주력하고 있다.
- 아시아 지역에서도, WHO, UNEP, UNDP, ADB 등이 공동으로 아시아 국가들의 환경보건 문제를 통합적으로 다루기 위해 2004년 제1차 환경보건 고위급회담을 개최한 바 있으며 매 3년마다 환경보건장관포럼(Joint Meeting of the Health and Environment Ministers)을 정례화하기로 합의하였다.
- 이와 같은 움직임들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환경건강문제가 국가차원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지역, 세계차원의 공동대응, 협력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기인한다.

○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환경보건에 성관점을 통합하기 위한 논의의 장

- 여성환경연대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서는 환경보건에 성관점을 통합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국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여성NGO, 연구자간의 환경건강 문제에 대한 정보 교류 및 공동대책 모색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. 이를 통해 그동안의 여성·환경·건강에 대한 국내외적 NGO 논의와 성과를 공유하고 공동의 의제를 설정하고자 한다.

IV. 프로그램 개요

1. 기간 : 2007년 7월 5일(목/한국 여성주간 내)

2. 장소 : 이화여자대학교 신세계관

3. 주최와 후원

주최 : 여성환경연대, 대한간호협회, 대한여성건강학회, 이화여대

후원 : 환경부, 서울시

4. 참가자

(A) 초청연설자 10여 명: 미국, 유럽을 비롯한 국내외 여성, 환경, 건강부문 전문가 및 여성NGO

(B) 기타 관련자 및 관심있는 일반대중 총 250여명

(C) 초청 발표자의 경우 3박 4일 체류(7/4-7/7, 회의전날 간담회와 다음날 시내투어)

5. 세부프로그램안

10:00 Registration

10:30-11:00 Opening Ceremony

여는 인사 : 박영숙(여성환경연대 으뜸지기), 신경림(이대 간호과학대학 학장)

김조자(대한간호협회 회장), 서주태(대한여성건강학회 회장)

축사 : 이치범(환경부 장관), 오세훈(서울시장)

11:00-12:00 Keynote Speech 환경보건에서 왜 여성이 중요한가

12:00-13:30 Lunch

13:30-15:30 Session 1 젠더관점에서 본 환경건강 의제

Presentation 1: 젠더 관점에서 본 몸과 건강

: 양승애(성신여대 간호학과 /대한여성건강학회)

Presentation 2: 환경오염과 여성생식건강에 관한 연구동향

: Kathleen Attfield (Silent Spring Institute 연구자)

Presentation 3: 환경유해물질과 여성건강에 관한 정책동향과 과제

: 하은희(여성환경연대 환경건강위원회 위원장/ 이대 예방의학과)

질의 응답

15:30-16:00 Tea Break

16:00-18:30 Session 2: 지구를 살리는 여성들의 환경건강운동

주제발표 1: 환경호르몬과 유방암

주제발표 2: 전자파와 여성의 건강영향

: 21sense(일본NGO)

주제발표 3: 동남아시아 여성들의 환경건강운동의 경험과 성과

Faye Ferrer(HCWH, **Health Care without harm**)

주제발표 4: 한국의 여성환경건강운동

: 이미영(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)

질의 응답

19:00 Dinner (주요 참가자만 참석)

V. 기대 효과

- 환경이슈와 통합된 여성건강 관점 · 정책 제안을 통해 여성의 삶을 보다 총체적으로 반영하는 전일적 여성건강문제 접근법 제시
- 유방암, 자궁암 등 여성생식암의 급증 등 환경오염으로 인한 여성건강문제에 대한 대중적 인식 확대와 대안 마련을 통해 궁극적으로 여성건강증진과 성평등한 지속가능한 건강사회 건설에 기여
- 성인지적 환경보건활동에 대한 아시아 공동행동프로그램 개발